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성 복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동물형상과 이동전시에 관한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2010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 소 과

조 영 철

동물형상과 이동전시에 관한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김 성 복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 소 과

조 영 철

인 준 서

조영철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 문 개 요

인류는 오랜 시간을 진화하며 다양한 형태의 문명을 축적 하였고, 그 문명의 산물인 도시가 만들어졌다.

산업혁명 이 후 도시는 더욱 기계적이고 정형화 되었으며 법과 질서들로 도시의 구성원들은 삶의 주어진 체계를 가지고 살게 되었다.

도시의 삶은 안정되었지만 개인의 개성보다 사회적 의무와 책임 등에 충실한 구조로 도시라는 구조에 편입되어 개인의 삶에 대한 의미와 표현이 갈수록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동물은 자신의 삶에 자리를 찾아 스스로 끊임없이 이동하며 각각이 지니고 있는 삶의 방식을 통해 살아간다.

인류 최초의 동물벽화인 알타미라(Altamira)동굴에는 많은 짐승들이 묘사되어있다. 초기인류는 동물을 사냥하여 먹을 것을 만들고 동물을 타고 이동하거나 짐을 옮기고 농사를 짓는 등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로 인식하였으며 때로는 풍부한 물과 먹잇감과 이상적 기후, 지형을 찾는 본능적 능력을 가진 동물들은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초기인류는 동물(말, 낙타, 야크, 소...)을 이용해 넓은 대륙을 끊임 없이 이동하였고 멀리 떨어진 공간과 공간이 이동을 통해 만나면서 문명이 발달하게 되고 국가가 건설되었다. 6백만 년 인류사에서 정착민의 역사는 고작 0.1퍼센트에 해당하는 시기였다고 한다. 현재의 유목주의는 과거 공간적인 이동 개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같은 공간에서도 특정한 삶의 가치와 삶의 방식에 매달리지 않고 끊임

없이 자신을 바꾸어 가는 창조적인 행위까지 포함 하게 된다. 학문(철학, 과학, 수학...), 문화(관람, 독서, 인터넷, 여행, 음식...), 예술(미술, 음악, 무용...)등 분야를 넘나들며 새로운 삶을 탐구하는 확장적인 개념으로 사유의 여행을 의미한다.

결국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하는 이동의 의미는 21세기의 필연적 패러다임(Paradigm)이다. 현대적 방식의 유목주의를 통해 도시라는 폐쇄적인 구조가 만들어 내는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되기 때문이다.

본인의 작업에서 동물형상이 갖는 의미는 생명체 대표해서 상징할 수 있는 원초적인 모습에 주목하여 중심형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동물-자연, 인간-도시, 동물-인간, 자연-도시 라는 관계들이 연구자에게 끼치는 영향을 동물 형태를 중심으로 도시와 자연 이미지의 특징적인 요소와 결합해 조형화하였다.

이동전시라는 전시형태는 실제 환경(자연, 도시, 특정 상황)에 조각을 설치하여 장소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동물형상이 갖는 관계상황을 통해 의미를 전달하려는 목적과 일반적으로 조각이 갖는 정지된 상황이 아닌 작품에서 말하고자하는 이동정서에 부합하기위해 장소와 장소를 이동하여 관계를 찾는 행위를 하게 되었다.

목 차

논 문 개 요

I. 서 론	1
II. 본 론	3
1. 작품형성 배경	3
1) 동물상징(動物象徵)과 인간과의 관계	3
2) 환경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5
3) 현대사회에서 유목주의(Nomadism)	6
2. 조형적 특성	9
1) 재료적 특성	9
2) 형태적 특징	10
3) 이동전시의 특성과 방법	12
3. 작품분석	15
III. 결 론	32

참 고 문 헌

ABSTRACT

작품 목차

【 작품 1】 유언이 되어버린 도시	15
【 작품 2】 도시를 위한 네발짐승	17
【 작품 3】 낭만 숫 사슴	19
【 작품 4】 태화강 코끼리	21
【 작품 5】 조각가가 선물한 네발짐승의 뿔	23
【 작품 6】 여 행 자	25
【 작품 7】 구름을 기억하는 말	27
【 작품 8】 북쪽의 무스로 부터	29

I. 서론

초기인류는 동물(말,낙타,야크,소...)을 이용해 넓은 대륙을 끊임없이 이동하였고 멀리 떨어진 공간과 공간의 이동을 통해 문명이 발달하게 되고 국가와 도시가 형성되었다. 6백만 년 인류사에서 정착민의 역사는 고작 0.1퍼센트에 해당하는 시기였다고 한다. 산업혁명 이후 도시는 더욱 기계적이고 정형화 되었으며 법과 질서들로 도시의 구성원들은 삶의 주어진 체계를 가지고 살게 되었다. 도시의 삶은 안정되었지만 구성원들 각각의 감정보다 공통의 질서 속에 고정되어 구성원들 개인의 삶에 대한 존재가 자리를 잃게 되었다.

현재 0.1퍼센트에 해당하는 정주화 된 삶은 어떠한 의미에서 스스로 선택했다기보다 안정된 삶이 내포하는 책임과 의무 등으로 짜여진 삶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동물은 자신의 삶에 적합한 자리를 찾아 스스로 끊임없이 이동하며 동물의 종류마다 지니고 있는 본능을 통해 살아간다.

이같이 인류는 동물과 함께 생활하며 교감하고 느낀 것을 표현하기 위해 동굴벽화를 비롯해 토우와 토기, 고분벽화 등에서 많은 종류의 동물들이 각기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하여 의식세계를 반영하고 있으며, 생활상의 일부분을 표현하고 있다. 현 시대를 사는 본인에게 있어 오늘날 동물의 특성은 문명이 주는 삶과 문명 이전의 삶을 살펴볼 수 있는 사례로 인식하였고 과거와 현재의 연결고리 역할로도 살펴보게 되었다.

다양한 특성의 환경과 동물형상에 대한 결합을 시도하여 오늘날

도시를 사는 사람들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공평한 가치인 생명력이 도시라는 구조의 의무, 책임, 질서 등에 경직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표현하였고 도시라는 또 하나의 인공적 환경 속에서 거침없이 이동하며 살아가는 이상적인 모습으로도 표현하게 되었다.

작품에 등장하는 환경과 결합된 동물의 모습은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투영하기 위한 것이다.

동물, 자연, 도시, 인간의 이미지와 특성을 탐구하며 본인이 느껴온 감정들을 이입하여 작업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생각을 토대로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동물-자연, 인간-도시가 갖는 일반적 의미와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고 관계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z

둘째, 동물-자연, 인간-도시라는 관계와 서로의 차이점을 토대로 동물형상과 결합한 도시 이미지 자연 이미지를 조형화한 이유와 근거를 논하고 이 같은 결과물과 함께 이동을 하며 전시를 하게 된 계기와 이 때 발생하는 특이점을 연구하고자한다.

셋째, 동물형상과 결합한 도시 이미지 자연 이미지가 갖는 조형적 특징과 이동전시가 갖는 의미를 정리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작업 방향을 제시하였다.

II. 본 론

1. 작품형성 배경

1) 동물상징(動物象徵)과 인간과의 관계

선사 시대부터 사람들은 그 당시의 여러 가지 생활문화나 종교, 관념 등을 표현하기 위해 각각의 의미를 담고 있는 동물상징(動物象徵)을 많이 사용했다. 바위그림이나 동굴 벽화를 비롯하여 토우와 토기, 고분 벽화 등에서 수많은 동물들이 각기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이러한 동물상징은 당시 사람들의 의식(의미와 관념)세계를 반영하고 있으며, 생활상의 일부분을 표현하고 있다.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속성, 외형과 형태, 능력 등은 사람이상의 물리적 힘을 발휘한다고 믿었다. 이에 사람의 능력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자연현상을 미리 알아내는 동물들의 능력에 대한 관념은 동물숭배로도 나타나 동물을 신성한 것으로 보고 이에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는 등 여러 신앙 행위로 오래 전부터 전승되어 오고 있다.

신라, 가야에는 말 그림, 말 모양의 고분 출토 유물이 발견되고 고구려 고분 벽화에도 각종 말 그림이 등장한다. 구비 설화나 문헌에서 말은 신성한 동물, 하늘의 사신, 중요 인물의 탄생을 알리고 알아 볼 줄 아는 영물 또는 신모(神母)이며, 미래에 대한 예언자적

구실을 한다. 동물에게 영력(靈力)을 인정하고, 이를 통하여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비롯해, 인간생활의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심리적으로 표현하고 있다.¹⁾

이 밖에 인간과 동물의 관계는 동물의 능력을 빌려 무거운 짐을 실어 나르거나, 수레를 끌며 병사들을 태우는 등 동물의 기능적인 측면들로 더욱 밀접해 진다. 인간은 처음으로 자기 걸음보다 더 빠르게 여행 할 수 있게 되었고 자기가 들 수 있는 것보다 더 무거운 것을 실어 나를 수 있게 되었다. 이때부터 유라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를 횡단하는 일은 평생 또는 여러 세대를 거쳐야만 가능한 일이 아니라 몇 년 동안에 할 수 있는 일, 곧 이어서 몇 달 내에 할 수 있는 일이 되었다.²⁾

또한 말과 바퀴 덕분에 인간은 무거운 짐도 실어 나르고 먼 곳에 가서 많은 양의 물건을 교환할 수 있게 되었으며 말을 타고 사냥이나 전쟁도 할 수 있게 되었다.

험한 자연 환경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인류에게 동물은 동경의 대상이자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인식 속에 강인한 생명력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이후 동물의 특성을 적극 활용하며 살게 되었다. 이와 같이 동물과 관계한 인류의 모습은 본인의 작품 속에서 초기 문명을 살피게 하는 중요한 인식의 틀이 되었다.

1) 박영수 「유물속의 동물의 상징」, 내일아침, 2005년 p122

2) 자크 아탈리 「호모 노마드 유목하는 인간」, 웅진 지식하우스, 2005년 p101~103

2) 환경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도시의 생성은 거친 자연의 제약 속에서 살아가던 유목민적 삶 대신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활용해 삶의 물질과 도구적 편익을 공동으로 증진하고 획득해 가기 위해 형성되었다.

미국의 도시학자 소자(Edward William Soja)³⁾는 세 차례의 도시 혁명을 통해 도시 유형에 따른 삶의 양태와 변화를 살폈다. 제 1차 도시 혁명은 선사시대에 일어난 것으로 보다 효율적인 수렵과 채집, 교육을 위해 취락의 도시를 도입 하였는데 소자는 이것이 농업혁명보다 앞선다고 보았다. 제 2차 도시 혁명은 농경문화의 잉여 산물을 바탕으로 도시가 왕조, 군사력, 계급 등을 갖추면서 사회적 체제의 기능하는 것이었다. 도시가 농촌의 잉여 생산위에 서는 구조였지만 서로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제 3차 도시 혁명은 산업화된 도시 사회로의 진입을 뜻하는데, 이때부터 도시 핵심부에 사회적 생산이 집중되어 도시가 농촌보다 우위에 서는 역전 현상이 생겨났다. 역전의 기반은 더 많은 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하고자 하는 도시 체제의 욕망으로 발생하였고 생산이 약화된 농촌이 도시에 예속되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⁴⁾

따라서 사람들은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찾아 도시로 이동하게 되었고, 도시의 인구집중은 이들을 효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건물을 점점 고층화 집단화 시켰다.

거리를 지나는 차량들의 질서와, 반복적으로 늘어선 아파트 단지,

3) 에드워드 윌리엄 소자 (born 1940, in New York, U.S.) 미국의 도시학자

4) 박삼철 「왜 공공미술인가」, 학교재, 2006 ,p23

고층빌딩의 웅장함, 반짝거리며 생동감과 역동감을 주는 도시의 야경은 현대인에게 자연의 모습보다 더 낯익은 풍경이 되어버렸다. 뻥뻥하게 들어선 건물들과 그 안에서 벌어지는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일상은 현대인이 느낄 수 있는 상실감과 거대한 도시의 이면을 담아 생산적이고 역동적인 반면 끊임없이 공허함을 느끼고 소외감과 무력감에 벗어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게 한다.

3) 현대사회에서 유목주의(Nomadism)

건물, 도로, 편의 시설 등 도시의 여러 인공물은 공동체의 안녕과 개인의 차별화 된 능력으로 존재하며 이러한 인공적 창조물들을 일방적으로 제공받는 사람들은 그에 순응하며 살아야한다. 다시 말해, 인간이 인간에게 거부할 수 없는 또 다른 삶의 인공적 조건을 주어진 셈이다.

도시의 인공적 자리 찾기와는 반대로 자연은 주인도 없고 누구의 소유일수도 없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기에 제 자리에 고립된 채 살아간다면 고인 물이 부패가 되듯 그 자리에서 생명력을 잃게 될 것이다.

사상가이자 문학가인 루소(Jean-Jacques Rousseau)는 “인간은 태어날 때에는 자유였으나 문명이 인간의 족쇄가 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자연을 인간의 극복대상으로 보는 인식의 구조는, 동시대 사람들에게 온갖 위기 상황을 노출시켰다. 비인간화와 물질주의 자연파괴

등은 결국 자연질서와의 충돌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며, 생명에 대한 자각과 자연의 일부로 존재하는 것이 인간임을 받아들여 정주성과 유목성을 통해 상실된 가치를 찾아 문제점들을 치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문명이 가져다준 혜택 모두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인간이 만든 인공적인 것은 최소한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전부이자 영원할 수 없다는 인식의 확장은 갈수록 폐쇄화 되는 인류를 위한 대안일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확장을 효과적으로 가져다주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동정서일 것이다. 사람들은 때론 익숙하진 않은 낯선 경험을 필요로 하여 여행하며 일자리를 찾고 다른 국가의 체제와 문화의 차이를 경험하기 위해 이동할 것이다. 이 같은 이동은 다른 대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좁혀 현대사회의 문제점 중에 몇 가지로 나타나는 인간성 상실, 양극화, 폐쇄성등을 와해한다.

6백만 년 인류사에서 정착민의 역사는 고작 0.1퍼센트에 해당하는 시기였다고 한다. 현재의 노마디즘(Nomadism)⁵⁾은 과거 공간적인 이동 개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같은 공간에서도 특정한 삶의 가치와 삶의 방식에 매달리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바꾸어 가는 창조적인 행위까지 포함한다.

노마디즘은 이러한 노마드의 의미를 살려 철학자 이진경이 들뢰즈의 저서 《천(千)의 고원》(1980)을 강의하면서 남긴 글을 정리하고 보충해서 2002년 출

5) 노마디즘(nomadism) 노마드(nomad)는 '유목민', '유랑자'를 뜻하는 용어로, 프랑스의 철학자 들뢰즈(Gilles Deleuze)가 그의 저서 《차이와 반복》(1968)에서 노마드의 세계를 '시각이 돌아다니는 세계'로 묘사하면서 현대 철학의 개념으로 자리잡은 용어이다.

간한 책의 제목으로, 우리말로는 유목주의로 번역된다. 기존의 가치와 삶의 방식을 부정하고 불모지를 옮겨 다니며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내는 일체의 방식을 의미하며, 철학적 개념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의 문화·심리 현상을 설명하는 말로도 쓰인다.

학문(철학, 과학, 수학...), 문화(관광, 독서, 인터넷, 여행, 음식...), 예술(미술, 음악, 무용...)등 분야를 넘나들며 새로운 삶을 탐구하는 확장의 개념은 사유의 여행을 의미하고 이동행위는 결국 다른 존재에 대한 점진적 인식으로 이어져 고립된 자아에서 벗어 날 수 있도록 한다. 이 같은 사실들을 통해 본인은 새로운 가치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이동정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작품에 수용 하게 되었다.

2. 조형적 특성

1) 재료적 특성

본 연구자의 작업에서 주로 등장하는 폴리카보네이트와 스테인레스 스틸, 실리콘, 금속 볼트와 너트, 시멘트는 현재 도시구성의 대부분을 이루는 대표적 건축 재료이다. 【작품 2, 3, 5, 8】에서 스테인레스 스틸 골조는 건축물이 주는 수직수평의 구조를 재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데 금속으로 격자구조를 만들었을 때 건축물과 같이 기본 골격으로 전체를 지탱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 내부에서 조망권을 확보해 외부환경으로 부터 실내공간의 이득을 보기 위한 창호의 역할을 한다. 또한 투명 소재로 폴리 카보네이트를 이용하여 다각형의 프레임 사이를 채워 공간을 차지하면서도 투영하다는 이중적 효과를 전달하기 위한 의도로 사용하였다. 【작품 2, 3, 5, 8】 다각형의 모서리와 폴리카보네이트 판재 결합에 보여지는 볼트와 너트 역시 현대도시, 산업사회, 대량생산의 상징적 효과를 재질감과 물질이 갖고 있는 반복되는 형태의 생산된 건축자재라는 의미에서 작품과 부합시킬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자연적 질서의 내용으로 제작된 【작품 4, 6, 7】은 유기적 선조합으로 구성 된 작품으로 공간속의 선(line)은 조형 미술에서는 기본적 요소로 그 자체만으로 선의 흐름이 만들어낸 윤곽선이 반복과 일정한 변화로 운동성을 가지고 그에 따른 성격을 나타낸다. 하버트 리이드는 “선은 사물의 윤곽선을 나타낼 뿐 아니

라 선 자체의 자율적인 운동을 표현하며 나아가 선이 적절히 조화 되었을 때 울동이 생긴다.” 고 하였다. 또한 선은 장단, 각도, 방향에 따라 여러 가지 표정을 가지고 다양하게 변화함으로 그 자체가 작가의 감정상태 및 심상을 표현하고 있다고 한다.⁶⁾

스테인레스 스틸은 현대 산업사회의 대표적 재료로 주목하기에 앞서 3mm ~ 4mm 정도의 가능한 얇은 선을 이용하기 위해 선택한 재료이다. 자연의 상징을 담아 유기적인 선으로 존재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용도로 사용하여 금속이 지닌 질량보다 커다란 부피의 형태를 묘사하면서도 물질이 강하게 드러나지 않고 부피 사이의 빈 공간을 투사 하여 선구조가 외부 공간과 함께 결합시키기 위한 재료로 사용하였다.

2) 형태적 특징

본 연구자의 작업에서 살펴 볼 수 있는 형태적 특징은 동물형상을 기본으로 조형화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다각형방식(Polygon type) 선조(線彫)⁷⁾방식(Line type)을 들 수 있다.

첫째, 동물형상의 다각형방식(Polygon type)은 도시의 건축물과 도로, 도시구간의 고공에서 촬영한 위성사진 등을 관찰하며 얻은 수직수평구조를 기반으로 하였다. 인류는 오랜 시간을 진화하며 다양한 형태의 문명을 축적 하였고 그 문명의 산물로 도시를 형성하

6) 리드 하버트 「서양 현대 조각의 역사」, 시공사, 1998년 p99

7) 선조(線彫) 선의 형태적 특성을 지닌 재료를 사용하여 입체적으로나 평면적으로 조형화하는 일 또는 그런 작품

였다. 산업혁명 이 후 도시는 더욱 기계적이고 정형화 되어 법과 질서들로 구성원들은 삶의 주어진 체계를 가지고 살게 되었다. 다각형방식에서는 수직수평의 요소들은 도시의 질서체계를 상징하며 모서리와 투명소재가 결합하는 부분에 사용된 볼트와 너트들은 이 같은 상징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량 소비, 산업사회의 반복되는 생산품의 상징으로 함께 조합하였다.

건축물처럼 정형화시킨 구조 중 동물형상은 인공적 구조와 질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직된 모습을 비유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도형의 결집으로 제작된 동물형상은 자연의 질서를 통해 본능적으로 이상적이 곳을 찾아 이동하는 존재가 아닌 인공적인 질서 안에서 고립되어 있는 인간의 질서와 같은 모습으로 그려진다.

둘째, 동물형상의 선조방식(Line type)은 위에서 언급했던 다각형방식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도시의 상징이 도형의 인공구조였다면 자연 질서의 상징은 선으로 나타내었다. 이때 선은 가능한 얇은 것을 이용하여 식물의 유기적곡선이 서로 부드럽게 얽혀있는 것처럼 이어 붙이는 용접방법을 사용해 형태를 제작하였다.

선 조합으로 표현한 동물형상은 뼈와 근육의 실루엣을 따라 강조할 부분의 밀도를 더하여 투사되는 공간을 막아주어 형태를 구체화하였고 배 부위와 엉덩이 등과 같이 비교적 넓은 부위는 비우는 것으로 공간의 여백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이러한 선조방식은 유기적인 선이 존재 할 수 있는 최소한 가느다란 선 구현의 용도로 사용되어 금속이 가지고 있는 질량보다 커다란 부피의 형태를 묘사하면서도 물질이 강하게 드러나지 않고 부

피 사이의 빈 공간을 투사 하여 구조가 외부 공간과 함께 결합하여 결과물이 설치되는 특정 공간의 환경과 결합하게 하는 특징을 갖는다.

3) 이동전시의 특성과 방법

도시의 고층 빌딩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재미만한 크기의 사람을 보게 된다. 이러한 시점은 권력과 소유에 영향을 받아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수직적으로 만들어 대화를 단절시키고 보이지 않는 계층을 만든다. 주거 공간 사이의 벽과 관공서 부촌과 재개발지역 등이 이에 해당된다. 갤러리 역시 고요와 여백은 작품을 전시하고 관람할 수 있는 양질의 조건을 제시 하지만 오히려 일상의 공간과 유리되어 거리감을 갖게 되는 공간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간극을 좁히고자 이동전시를 시작하게 되었고 거리에서 만나는 불특정 다수의 관객을 만나면서 본인이 느꼈던 도시의 구조에 관한 견해를 많은 사람들과 일상의 공간에서 편견 없이 살펴보기 위한 시도였다.

이동전시라는 전시형태는 실제 환경(자연, 도시, 특정 상황)에 조각을 설치하여 장소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동물형상이 만들어내는 상황의 설정을 통해 내용을 전달하려는 목적과 조각이 지니고 있는 정지된 상황이라는 한계를 넘어 이동정서라는 작품의 의미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장소를 이동하여 관계를 찾는 행위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미국의 사진작가 샌디 스코글룬드(Sandy Skoglund)⁸⁾가 '만드는 사진(Making Photo)'을 위해 직접 무대를 꾸미고 필요한 오브제를 만들어 사진을 찍었듯이 본인은 조각 작품을 통해 독립성을 가지고 존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결과물을 가지고 상황설정에 적합한 환경으로 이동하여 실제 하는 공간을 관람자에게 제시하고 이때 만난 관객은 미술 전문공간을 찾아온 관객과는 다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그들이 인지하는 일상적 공간과 본 연구자가 만들고자했던 연출된 상황이 만나는 부분에 목적을 두었다. 관람자의 반응은 준비되지 않은 인식이 주는 놀람, 실제라고 느끼는 환상, 의문 등의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

이동전시의 장소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공장소와(광화문광장, 인사동,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인적이 드문 재개발 지역(성북동 갤러리 이안재 일대), 비교적 문화적 향유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지역(몽골/울란바타르, 부산 다대포 공장단지, 안양/석수시장), 거리가 멀어 지역 간 감성적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곳(울산/태화강, 전북 도립미술관 야외공간, 김해, 포항, 통영시 매물도), 등지에서 진행 하였다.

이와 같은 형태로 울산에서 체류하며 진행했던 이동전시는 태화강을 인식하는 사람들에게 어느 날 설치된 코끼리조각 **【작품 4】**이 지나는 사람을 인식하고 태화강의 물을 뿜고 있는 모습으로 연

8) 샌디 스코글룬드(Sandy Skoglund, 1946.9.11~)미국의 사진작가이자 설치 미술가 미국의 사진작가이자 설치미술가. 1980년대 '만드는 사진(Making Photo)'을 주도한 대표적인 여성 작가이다. 직접 무대를 꾸미고 필요한 오브제를 만들어 사진을 찍었으며, 보색의 강렬한 색채 대비와 환상적이고 기이한 분위기의 연출로 비극적이고 암울한 상황을 암시하는 작품 구성을 특징으로 한다.

출하여 장소와 관련한 내용으로 상황을 전개했다.

몽골에서의 이동전시는 일정기간 몽골에 체류하며 얻은 지역의 정보와 그들의 인식에 기초하여 조각【작품 6】을 제작하고 몽골의 대표적인 축제인 몽골 말경기가 열리는 장소에 설치하고 관람자들에게 붓을 건네 함께 조각을 채색하여 장소에서 발생한 상황의 의미를 만들고자 하였다.

이동전시에서 작품이 결합한 환경과 상황을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하고 인터넷 매체(트위터, 페이스북, 홈페이지, 블로그)에서 다시 만나게 되고 관람자는 자신이 느꼈던 것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이동전시의 경로, 현재위치에 관한 정보를 나누며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게 된다. 또한 위의 활동들의 기록은 다시 전시장에서 발표하여 이동전시의 상황을 전시로 재구성하여 이동전시에서 만난 관람자가 미술전시장을 찾기도 하고 전시장에서 작품을 감상하였던 관객이 일상에서 같은 작품을 만나게 되는 등 장소를 이어주는 계기도 갖게 되었다.

3.작품분석



【 작품 1】 유언이 되어버린 도시

【 작품 1】 유언이 되어버린 도시

크 기: 2500x2500x1700

재 료: 합성수지, 시멘트

제작년도: 2008

제작방법: 점토 작업 후 석고로 틀을 만든 뒤 합성수지를 이용하고 시멘트와 모래 목공본드를 섞어 합성수지 겉 표면에 접착시킨 후 완전히 건조 시킨다. 반복되는 작은 군상은 최초 점토원형을 실리콘 몰드로 찍어 내어 여러 개체들을 뽑아내었다.

작품설명: 도시 속에 고립되어가는 인간의 정서를 묘사하기 위해 도시의 정지된 풍경을 묘사하였다. 중앙의 네발달린 짐승과 빌딩형상이 결합한 형태는 동시대 사람들간 계층의 차이를 만들며 동등한 생명으로 관계를 무력화 시키는 욕망의 상징으로 나타나며 굳어 버린 듯 반복 되는 인물상의 배열은 문명이 제공하는 첨예한 구조 사이에 경직된 인간의 모습을 대변한다.

개인의 시간들이 더 존중받고 개인과 개인이 서로 소통하는 상황들을 기대하는 본인의 생각은 현실에서 많은 괴리감을 갖게 하여 유언이 되어버린 도시라는 작품을 제작하게 된다.



【 작품 2】 도시를 위한 네발짐승

【 작품 2】 도시를 위한 네발짐승

크 기: Each 900x2400x2800

재 료: 스테인레스 스틸, 폴리카보네이트

제작년도: 2008

이동전시: 서해안 일대

제작방법: 80스테인레스 환봉을 이용하여 말 형태를 다각형으로 묘사하여 알곤용접한 후 선조사이에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은 폴리 카보네이트판을 같은 각도로 절단하여 타공한 후 스테인레스 볼트와 너트로 두 가지 재료를 결합한다.

작품설명: 투명한 녹색빛의 두 마리 말은 도시디자인의 일반된 패턴들 빌딩의 수직수평구조 유리와 벽 교차되는 도로등 문명과 질서를 상징하는 조형요소를 끌어와 말 형태로 재구성하였다 오늘날 개인의 동의와 무관하게 흘러가는 문명의 시간은 동시대사람들에게 이해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문명과 자연이 조화롭게 다가올 시간 속에 존재 할 수 있다면 개인의 역사들은 상실감과 괴리감등의 정지된 정서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에 비추어 긍정적 에너지를 이상향을 향해 이동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위해 문명에 고립된 동시대 사람들의 정서를 상징하는 말 형태를 바다로 이동시키고 이를 디지털이미지로 기록하여 전시장, 거리 인터넷스틱커 전단지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여 대화를 시도하였다.



【 작품 3】 낭만 슷 사슴

【 작품 3】 낭만 슛 사슴

크 기: 1000x2700x3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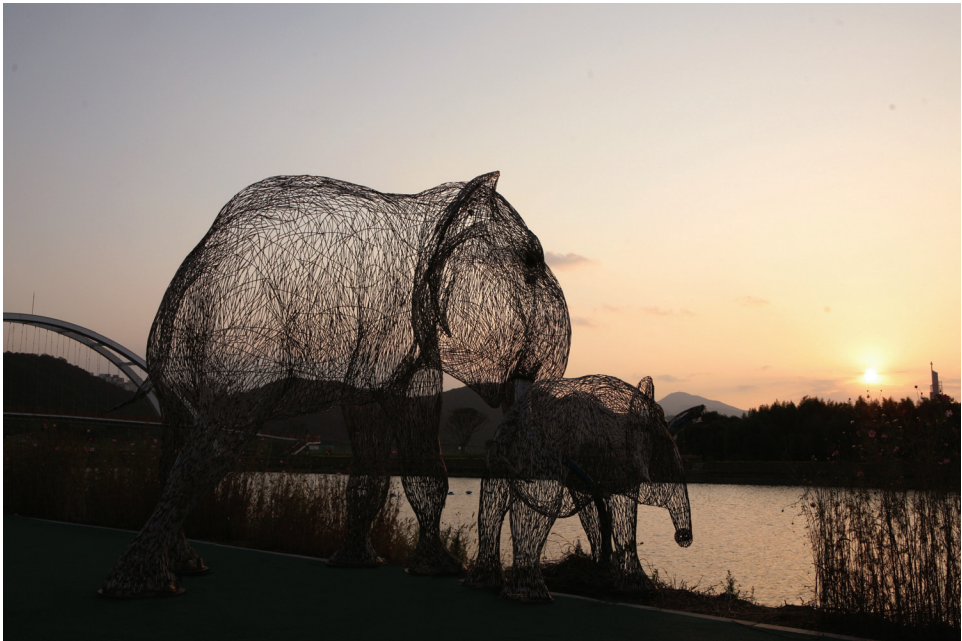
재 료: 스테인레스 스틸, 폴리카보네이트

제작년도: 2008

이동전시: 성북동 일대

제작방법: 8Ø스테인레스 환봉을 이용하여 사슴 형태를 다각형으로 묘사하여 알곤용접한 후 선조사이에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은 폴리 카보네이트판을 같은 각도로 절단하여 타공한 후 스테인레스 볼트와 너트 로 두 가지 재료를 결합 한다. 사슴의 뿔에 해당하는 부분은 스테인레스 2T두께의 판재를 프라즈마로 절단하여 사각뿔 도형으로 제작하여 알곤용접 하였다.

작품설명: 본 작품은 생존에 필요에 따라 본능적으로 이동하는 야생동물의 습성으로서 서정성으로 대표되는 사슴의 이미지를 끌어와 조형화 하여 문명의 풍요속에 감춰진 개인의 방향성과 삶의 이유 등에 대한 상실감으로 현대 사회에 갖혀 방황하는 인간의 모습을 조각형상으로 제작하고 이 같은 상황이 연출 되는 곳을 찾아 이동하고 조각과 환경이 갖는 관계상황을 사진으로 기록하여 표현하였다.



【 작품 4 】 태화강 코끼리

【 작품 4】 태화강 코끼리

크 기: 2200x4000x3000

재 료: 스테인레스 스틸, 수중펌프, 타이머

제작년도: 2009

이동전시: 울산/태화강, 성북동 재개발 지역일대, 대학로

제작방법: 코끼리의 습성과 본능에 관한자료를 조사하고 5Ø스테인레스 코일을 밴딩하여 알콘용접을 이어붙이고 울산 태화강 강변에 설치하고 태화강 내부에 수중펌프를 설치하여 코끼리 코를 통해 물을 뿜는 것 같이 표현하였다.

작품설명: 본 작품은 울산 태화강 국제설치 미술제에 발표하기 위해 현장을 먼저 답사한 후 제작되었는데 태화강은 과거 산업특구로 지정되어 오염된 생태를 울산시민들 각각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깨끗하게 되살렸다고 한다. 생존에 필요한 물과 먹이 환경등에 대한 본능적 자각을 통해 이동을 하는 야생동물중 코끼리는 가족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동물로 대표한다 자연과 인간의 대립이아닌 화해를 통한 아름다운 공존을 이룬 그들의 삶에 대한 오마주로서 코리끼 형태의 조각작품을 강변에 설치하고 수중펌프를 통해 태화강의 물을 끌어올려 15분 격으로 물을뿜는 것을 반복하는 장치를 하였다 본작품을 통해 생명을 되찾은 강으로 본능적 이동질서를 갖는 야생동물이 찾아와 공존할 수 있다는 모습으로 설치 연출 하였다.



【 작품 5】 조각가가 선물한 네발짐승의 뿔

【 작품 5】 조각가가 선물한 네발짐승의 뿔

크 기: 1000x900x2300

재 료: 스테인레스 스틸, 폴리카보네이트

제작년도: 2008

제작방법: 8 \emptyset 스테인레스 환봉을 이용하여 사슴 형태를 다각형으로 묘사하여 알곤용접한 후 선조사이에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은 폴리 카보네이트판을 같은 각도로 절단하여 타공한 후 스테인레스 볼트와 너트 로 두 가지 재료를 결합한다. 사슴의 뿔에 해당하는 부분은스테인레스 2T두께의 판재를 프라즈마로 절단하여 사각뿔 도형으로 제작하여 알곤용접 하였다.

작품설명: 본 작품은 현대를 살아가는 동시대 사람들에게 동물 머리에 달린 강인하고 아름다운 뿔처럼 굳건하고 근본적인 생명으로서 개인 존재에 대한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기원의 의미를 포함하여 제작하였다.



【 작품 6 】 여 행 자

【 작품 6】 여 행 자

크 기: 750x3000x2200

재 료: 철근8∅, 우레탄 페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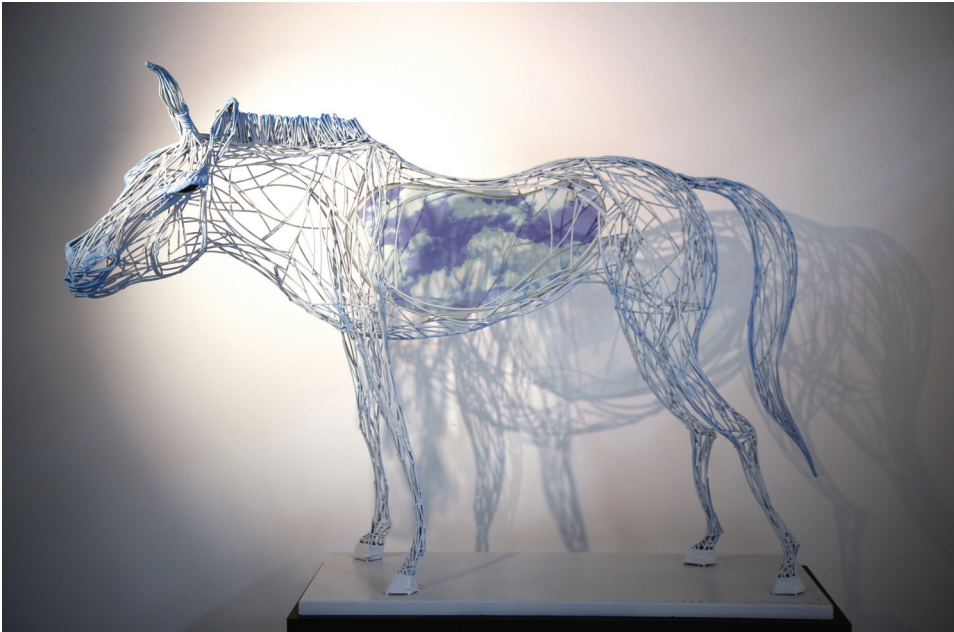
제작년도: 2009

이동전시: 몽골/울란 바타르. 후이덜링 후덕 초원일대

제작방법: 몽골말의 습성과 본능에 관한자료를 조사하고 8∅철근을 밴딩하여 알곤용접을 이어붙이고 몽골 후이덜링 후덕 초원에 설치하고 인근 주민들과 미술체험행사를 만들어 함께 채색하여 완성하였다.

작품설명: 본 작품은 몽골의 대표적 전통행사인 나담 축제에 초대되어 한달간 몽골에 머물면서 몽골문화에 대한 본인의 경험을 미술작품으로 축제 기간동안 표현하기로 하였다.

결과물 이전에 작업과정에 대한 이해를 관객과 함께 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나담 행사의 여행자라는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 몽골초원을 여행하며 야생말의 구조적 특성과 생태 그리고 현지 사람들과의 교감을 작품으로 옮기기 위해 그들의 삶에 대한 경험과 인류 정착이전의 삶에 대한 이유 자연과의 교감 등의 정서를 표현하였다.



【 작품 7】 구름을 기억하는 말

【 작품 7】 구름을 기억하는 말

크 기: 200x700x500

재 료: 철 코일, 유리, 락카 스프레이

제작년도: 2009

제작방법: 말 구조 에 대한 자료조사를 토대로 3Ø 철 코일을 이
어붙이고 내부에 두 장의 판유리사이에 몽골에서 촬영
한 하늘 이미지를 삽입하여 내부에 고정 한다.

작품설명: 본 작품은 몽골을 여행하면서 얻은 기억을 조각으로 기
록한 것이다 도시에서는 빌딩숲에 가로막혀 볼 수 없
었던 넓은 하늘과 펼쳐진 초원 우연하게 만나게 되는
야생말들 등의 기억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 작품 8】 북쪽의 무스로 부터

【 작품 8】 북쪽의 무스로 부터

크 기: 2200x4100x2700

재 료: 스테인레스 스틸, 폴리카보네이트

제작년도: 2009

제작방법: 8Ø스테인레스 환봉을 이용하여 무스 형태를 다각형으로 묘사하여 알콘용접한 후 선조사이에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은 폴리 카보네이트 판을 같은 각도로 절단하여 타공한 후 스테인레스 볼트와 너트 로 두 가지 재료를 결합 한다. 무스의 뿔에 해당하는 부분은 몸체와 마찬가지로 선으로 뿔을 도형화 하여 뼈대를 제작한후 스테인레스 판재2T를 프라즈마 절단하여 알콘용접하고 산소불대로 열처리하여 오로라문양을 입혔다.

작품설명: 습지나 삼림지대 서식하는 무스는 현존하는 사슴과중 몸집이 가장 크며 뿔의 크기 또한 다른 동물에 비해 넓고 크며 화려하다. 뿔의 모양이 손바닥을 닮았다고 하여 국내에는 말코 손바닥 사슴으로 불리기도 하는 동물의 생태를 방송매체에서 우연하게 접하고 그들의 습성 생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무스는 번식기를 앞두고 자신의 생존을 위해 뿔다듬는 일에 굉장한 집착을 보인다. 뿔이 덮고 있는 솜털이 가득한 가죽을 수일

에 걸쳐 많은 피를 흘려 가며 벗기고 다듬은 모습을 보고 조각을 전공하는 본인의 삶에 비추어 무스라는 야생동물은 마치 본능적으로 자신의 삶을 위해 스스로 엄격하게 수행을 하는 진지한 생명체로 인식되었다. 조각가로서 삶을 택한 본인에게 가르침을 전해준 무스라는 동물을 도심이라는 인공적 야생을 살아야하는 현대인의 모습으로 빗대어 표현하였다.

Ⅲ. 결 론

오늘날 문명이 주는 혜택과 감성적 결핍등과 같이 양극화된 가치는 피할 수 없는 삶의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고 결국 인위적 질서가 아닌 보이지 않는 순리(順理)임을 깨닫게 된다. 마음과 마음을 관통하는 이해와 움직임이 문명과 공존 할 수 있는 화해의 필수 조건임을 깨닫게 된다.

도시가 주는 안정된 삶과 다양한 혜택을 담보로 조명되지 못한 개인의 역사가 본질적 가치의 생명이 아닌 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부분으로 인식 되는 모습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기반으로 폴리 카보네이트, 금속, 시멘트 등과 같은 도시를 구성하는 인공적 재료를 사용하여 박재 된 야생동물의 모습 또는 거친 환경에서 의연하게 살아가는 강한 동물 그대로의 모습으로 동시대 사람들의 고립된 모습을 표현하였다. 이렇게 제작 된 결과물을 바다, 초원, 골목, 공장단지, 변화가 등지에 이동하여 환경이 주는 특이성과 결합하여 얻어지는 상황을 현장에서 불특정다수의 관람자들에게 그대로 제시하거나 디지털 이미지와 동영상 등으로 기록하여 각종 웹사이트 등을 통하여 담론을 형성하고 전시장에서 이것들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작품 활동을 전개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시를 사는 동시대 사람들의 고립된 정서와 가압적인 상황들에 대해 문화 예술로 단절된 대화의 실마리를 풀고자 했던 본인의 작업관과 전시형태에 대해 다루었다.

도시를 사는 구성원 개인의 인간성 상실에 관한 문제는 특정한 누군가의 문제가 아닌 도시 곳곳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일상과 유리된 예술이 폐쇄적인 도시구현에 일조하고 있다는 것을 갈수록 강하게 느끼게 되어 사회구성원인 본인에게 삶에 대한 환경적인 문제와 정서적 황폐화를 예술로 표현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와 제작과정, 전시형태에 대한 시도들을 통하여 동시대를 투영하는 산물인 예술은 인공적인 질서로 향할수록 심화되는 이해의 단절을 와해하고 양극을 좁히는데 필요한 도구라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앞으로 동물형상의 이동전시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과 생각을 나눌 수 있는 동물형상과 전시문화에 관해 연구할 것이다.

참고 문헌

리드 하버트 Read , Herbert <서양 현대 조각의 역사 >김성희 , 시공사,
1998

마일스 맬컴 Miles ,Malcolm <미술,공간,도시> 박삼철 , 학고재 2000

박영수 <유물속의 동물의 상징> , 내일아침, 2005

박삼철 <왜 공공미술인가>,학고재 ,2006

자크 아탈리 Jacques Attali<호모 노마드 유목하는 인간>이효숙, 웅진 지식하
우스 2005

차인석 <사회 인식론> 민음사 , 1987

월간미술 <세계 미술용어 사전>, 중앙일보 출판사,1996

ABSTRACT

A Study on Animal Figures and Moving Exhibition

- On the basis of my work -

Cho, young chul

Dept. of

Sculture

Graduate School of

Plastic Art

Sungshin Women's Universty

Humankind has developed in many different ways of forms in cultural bases through the long period of historical time and it built cities and civilization.

City have become more standardized after industrial revolution therefore, the members of city lives in systemized rules and laws.

The life of city is now stabilized under the sense of

structured system but it concerns more of social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not on individual meanings and expressions.

On the other hand, animals find their way of settling by prolonged travel to find self-reliance.

The first animal mural, Altamira cave describes many different animals. Early age of mankind considered animal as important existent to perform living needs, such as transportation, farming or carrying carriages. Or instinctively gifted animals that can find water, food and sense the rare weather and topography of coming land were even worshiped.

Early age of mankind moved through great land by using animals (horses, camels, yaks, cows...) and the distant between spaces merged by its movement to build a foundation of cultural development thus became a country. The settling period of humankind takes only 0.1 percent of the history in last 6 million years. Nomadism at this time of period is not only limited on Movement, it contains the performance of changing life in creative ways and not restricted in any type of system. This covers the realm in Academics (philosophy, science, mathematics...), Culture (sight-seeing, reading, internet, traveling, food...), Art (visual

art, music, dancing...) and etcetera, to investigate new life of extensive meaning in travel of possession.

At last, diversity meaning of movement is inevitable paradigm in 21st century. It can be alternative to overcome the structure that was made by modernized way of nomadic city.

The meaning of animal form in my work is to focus on symbolical primitive forms upon life figure and embody its main visual form. And I unify the relations between these elements,

Animal-Nature, Humankind-City, Animal-Humankind, Nature-City, in a way of animal form that influenced researchers; hence these form smerge with features of city and nature formatively.

The method of Moving Exhibition is installing a sculpture in real environment (nature, city, specific situation) to deliver the meaning of relationship between the specific space and animal figure. And this performance is not limited on remaining but by traveling, the sculpture finds connection through locations.